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

KTDB



2015
vol.23

01

<http://www.ktdb.go.kr>

Korea
Transport
Database
Newsletter



재미있는 통계이야기 자동차 2천만 시대 국내 자동차등록 현황 특성 (고두환_연구원 | 황순연_부연구위원) p.2

FOCUS 첨단자료 기반 여객기중점통행량 검증방안 연구 (천승훈_부연구위원 | 김성민_연구원) p.3

SPECIAL REPORT 국가교통통계의 고급화를 다지며 (김찬성_국가교통DB센터 소장) p.4

DB TREND 주요 기관별 교통통계 제공 동향 비교 (오연선_연구원 | 황순연_부연구위원) p.6

NEWS 「민간 교통정보 협력」 공동 세미나 개최 외 p.8

자동차 2천만 시대 국내 자동차등록 현황 특성

고두환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 황순연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2014년 12월말 우리나라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013년도보다 71만 7천 대(3.7%) 늘어난 20,117,955대로 집계되었다.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 2천만 시대에 진입에 따라 자동차등록현황을 차량특성별, 지역별, 도시특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고자한다.
자료 : 자동차등록현황,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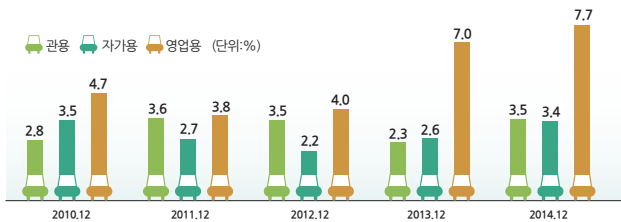
자동차등록 추이

● 용도별 자동차등록 증가율 추이(5년간, 2010~2014년)

영업용 자동차
증가율의
증가원인

① 1000cc미만의
국산 승용일반형 차량 증가
5년간 평균 증가율
47.2%

② 1000~2500cc미만의
외산 승용일반형 차량 급증
2014년 증가율 **78.5%**
5년간 평균 증가율 **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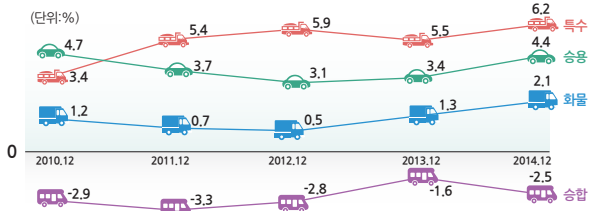
주1) 분석에는 각 년도 12월 기준 자동차등록대수 총계 사용 주2)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

● 차종별 자동차등록 증가율 추이(5년간, 2010~2014년)

승합차 증가율
감소 원인

자가용 승합차의
꾸준한 감소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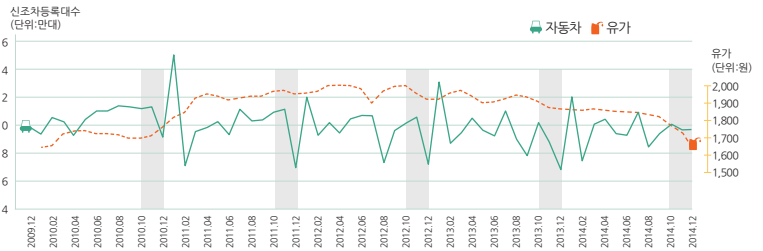
2014년 기준
전년대비
-2.5%



신규 자동차 등록과 유가 추이

● 유가변화에 따른 신규 자동차 등록 추이(전년 동월대비 현황)

최근 유가가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부터 2013년 말까지 신규자동차등록 패턴은 연말(12월)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이 하락하였다가 월초(1월)에 급증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2014년말(10~12월) 신규 자동차등록대수는 과거 동일한 기간과는 다르게 급감하지 않고, 동일기간 유가의 하락과 더불어 10월부터 12월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1) 승용차(승용+승합차 합계)

주2) 유가정보 : 한국석유공사 펌트로넷(www.petronet.co.kr)에서 제공하는 국내석유경보-가격총괄의 주유소 기준 가격을 적용

도시별 특성에 따른 자동차 등록 추이

● 지역별 인당/세대당 자동차등록대수

지역별 세대당
자동차등록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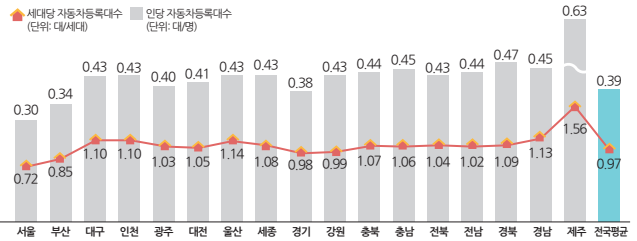
전국 평균 **0.39**
최고 제주 **0.63**
최저 서울 **0.30**

인당 자동차등록대수

평균 이상 나머지 지역
평균 이하 서울, 부산, 경기

인당
자동차등록대수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세대당 1대 미만
최고 제주 **1.56**



주) 인구 및 세대수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등록인구 전체, 재외국민 포함) 참고

● 지역별 국산/외산 자동차등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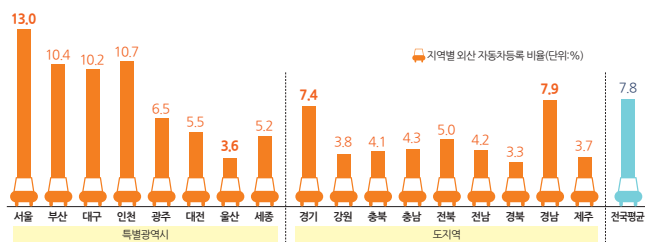
전국 기준
서울 **13.0%**

※전체적으로
광역시와 수도권
지역이 다소 높음

전체 자동차 대비
외산 자동차의
등록현황



서울과 수도권 제외
지방 지역
경남 **7.9%**



첨단자료 기반 여객기종점통행량 검증방안 연구

전승훈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 김성민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여객기종점통행량은 교통문제 해결과 각종 교통정책을 위해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연구는 첨단자료를 이용하여 실제 제시되는 기종점통행량(O/D)을 검증해 보았다.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알아보고 첨단자료 이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연구개요

- 여객교통수요는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며, 그 주요 요인으로는 여객기종점통행량(O/D), 네트워크(Network), 도로통행비용함수(VDF)가 있다.
- 그 중 여객기종점통행량(O/D)은 기점과 종점간의 총 통행량을 결정하며, 이는 여객교통수요의 신뢰도 결정에 가장 기반이 되는 요소이다.
- 본 연구에서는 여객기종점통행량(O/D)을 첨단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재 제시되고 있는 여객기종점통행량(O/D)을 검증해 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1) 본 연구 활용 자료

- 본 연구에서는 내비게이션 자료, TCS 자료, 관측교통량 자료를 기반자료로 활용하였으며, 각 자료는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한다.

〈본 연구 활용자료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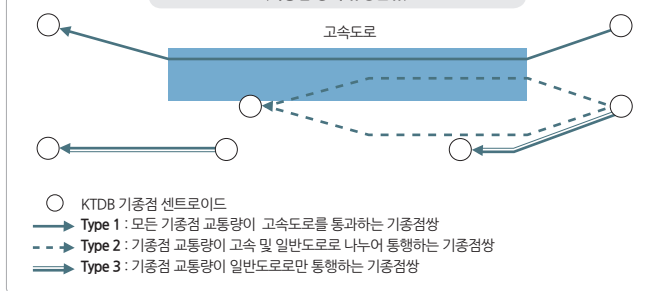
자료의 종류	표본/총량	공간적 범위	공간상관 분석	수집기간	
내비게이션 자료	표본 자료	KTDB 전 공간	가능	장기 수집	
TCS OD	총량 자료	부분 교통망	일부 가능	장기 수집	
링크 관측 교통량	수시 교통량	총량 자료	KTDB 전 공간	불가	단기 수집
	상시 교통량	총량 자료	KTDB 전 공간	불가	장기 수집
	고속도로 교통량	총량 자료	KTDB 전 공간	불가	장기 수집

2) 첨단자료를 활용한 기종점통행량 추정 모형 개발

가. 기종점 쌍의 유형분류

- 본 연구에서는 기종점 쌍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기종점 쌍의 유형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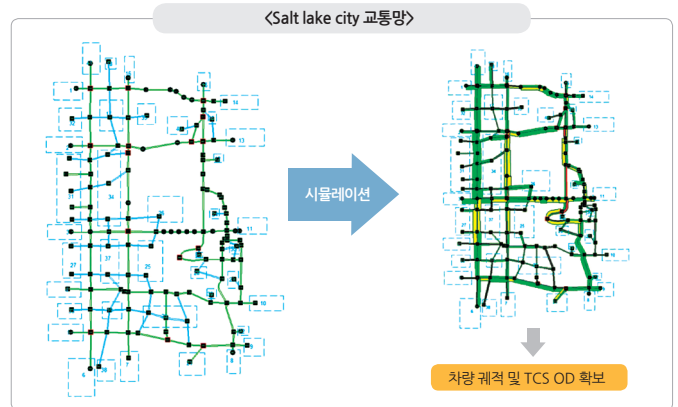


나. 기종점통행량 추정 모형 개발

- 본 연구에서는 최우추정법과 최소사승법을 적용한 모형을 개발하였음
- 최우추정법은 내비게이션 자료 기반의 표본 O/D가 극대화되어 추출될 수 있도록 설계. (즉 기점과 종점의 발생·도착 통행량과 표본 O/D가 존재할 때 최우추정법에 의해 얻어지는 기종점통행량은 내비게이션 표본이 얻어질 확률이 극대화 되는 전체 기종점 통행량임)
- 최소사승법은 TCS 자료와 KTDB O/D의 고속도로 영업소 진출입 교통량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며 최우추정법에서 추출된 표본 O/D를 최적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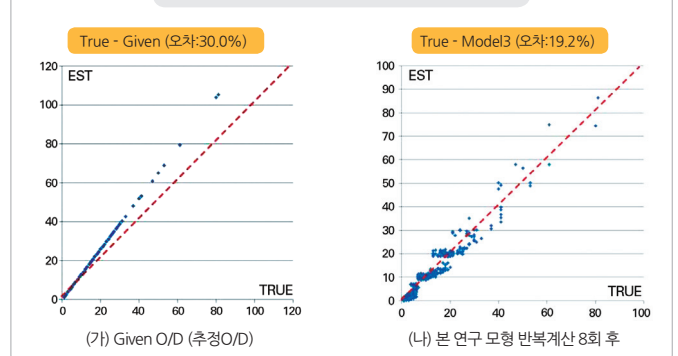
다. 기종점통행량 추정 모형의 검증

- 기종점통행량 추정 모형의 실용적 성능 검증을 위해 미국의 Salt Lake City 교통망에 대해 검증을 시행하였다.
- Salt lake city 교통망은 총 38개의 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형태는 다음과 같다.



- 본 연구의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Given O/D(추정O/D)와 내비게이션 기반 O/D(표본 O/D)의 오차율을 가정하였고, Given O/D와 내비게이션 기반 O/D를 통해 추정되는 본 연구 모형의 O/D는 Given O/D의 오차율을 30.0%에서 19.2%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소 별 유입유출 교통량 재현수준 비교〉



결론

- 본 연구는 첨단자료 기반의 기종점통행량 추정 모형의 개발을 통해 실제 제시되고 있는 기종점통행량(O/D)을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의 모형을 적용하면, 오차율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 향후 첨단자료의 양적, 질적 증대를 통한 보다 정확한 모형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기종점통행량 변동 분석, 기종점통행량 총량검증 등 다양한 형태의 검증방안의 연구가 필요하다.

국가교통통계의 고급화를 다지며

김찬성 (국가교통DB센터 소장)

통계 선진국에서는 수송실적과 분담률 외에 교통혼잡, 교통접근성, 이동성 등 사람과 차량이 교통시설을 이용하면서 겪게 되는 정도를 계량화한 통계들이 최근 많이 생성되고 있다. 국가교통DB센터에서도 2~3년 전부터 이러한 작업을 수행해 오고 있는데, 이번 호에서는 새로 달라지는 통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서론

2013년 사회문제에서 택시대란이 있었다. “택시의 수송분담률이 얼마인가?”에 대하여 정부와 택시업계간 혼란이 있었던 시기이다. 택시 업계에서는 그 당시 발행된 국토교통부의 통계연보를 인용하여 언론보도를 하였는데 그 당시 연보는 승용차 등 자가용이용자의 수송실적이 없는 영업용 운송수단 중에서 택시의 분담률을 활용한 것이었다. 정부입장에서는 자가용 실적의 부재로 혼동을 주었다고 해명했지만, 정부통계에서 분담률이 가장 높은 자가용수단이 빠져 혼동을 유발한 것에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이후 신속하게 개선 작업이 이루어져 2014년부터는 국토교통통계연보에 자가용수단이 포함된 수단별 분담률이 배포되어 혼동의 우려는 제거되었다. 개선 작업과 관련된 내용은 2012년 4월 및 2014년 4월 국가교통DB센터 주관 행사인 “국가교통통계생성 개선방안”연구로 공청회를 통해 소개하였다. 이와 같이 수송실적과 수송분담률은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통계이며, 여러 기관이 통계작성과 관련이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총괄 집계하여, 국토교통통계누리 에 제공, 통계청의 e-나라지표에 제공, 통계청의 통계연감에 반영되고 있다.

최근 국가교통DB센터의 경험에 따르면 중요한 통계가 처음 생성되고, 수치가 안정화되고, 통계청의 통계승인을 받기까지에는 적어도 3~5년이 소요된다. 2~3년 전부터 교통혼잡, 교통접근성, 이동성 등과 같은 통계생성을 위한 작업을 수행해 오고 있는데, 향후 2년내에 정부통계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통통계의 고급화 실적과 계획

2015년 전후의 국가교통DB센터의 주요 사업실적과 계획

추진목표

국가교통DB센터는 “우리나라의 교통체계 (예: 혼잡 수준)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예측하고, 통계적 수치를 생성할 수 있는 센터”가 된다는 비전을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제2차 국가교통조사계획 (2014~2018)』의 91쪽에서 제시한 바 있다.

※관심 있는 독자는 국토부 발행 “제2차 국가교통조사계획”과 본원 발행 월간교통 2015년 1월호에 “2015년 국가교통DB 업무계획”을 참조.

향후 전망

- **2015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2016년 정기조사에 대비한 예비조사와 2014년에 시작된 교통정보의 통합관리방안의 2단계 완성
- 2012-2014년에 시작된 교통혼잡통계, 교통량기반의 주행거리통계 그리고 접근성 통계 등 교통통계의 2015년 완성을 목표
- **2016-2017년**에는 통계 수치의 안정화를 추진하고 통계청과의 협의를 통해 새롭게 승인통계화하고 새로운 교통통계집의 발간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
- 통계집이 정비되면 미국 교통통계청(BTS)의 통계집에서 다루고 있는 항목들과 수준이 유사하게 될 전망

2015년 전후 DB사업의 주요 내용들



2015년 교통통계 고급화의 예시 (접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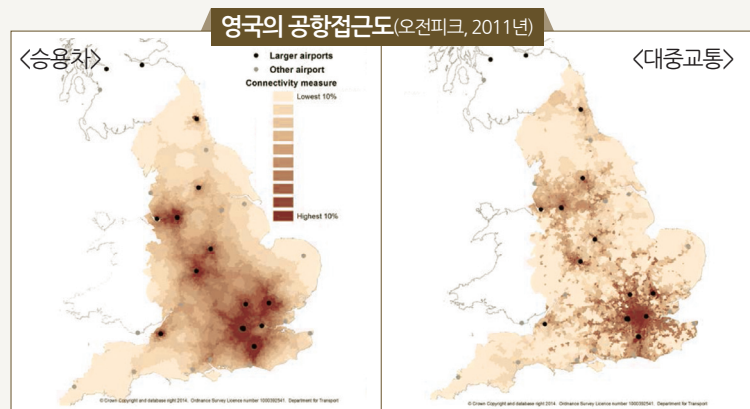
국가교통DB센터는 교통혼잡과 교통량기반 주행거리 통계는 이미 2014년 2월 “교통혼잡지도 한눈에 본다”라는 주제로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통해 소개했기 때문에, 2016-2017년에 발행될 교통통계집으로 포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DB센터의 또다른 중요한 통계로서 승용차와 대중교통의 접근성 지표를 추진중이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는 이러한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뒤늦은 감이 있다. 가령, 영국에서는 접근성 관련연구(accessibility planning)가 교통계획 및 토지이용 계획 분야와 연계되어 활성화되어 있고, 영국 전역에 걸쳐 구축되어 지방 정부(Local Transport Authorities)에서부터 중앙 정부(Department for Transport)까지 널리 활용되고 있다.



교통접근성 분석은 그래픽 등을 통해 일반인 및 전문가들에게 시각적으로 도움이 된다. 영국 교통부의 보고자료를 아래와 같이 인용해 본다. 영국 내 각 지역에서 15개 주요 공항으로의 접근성 분석결과로서 자동차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아침 혼잡시간에 주요 공항에 접근할 때 걸리는 시간을 공간적으로 분석하여 도식화한 것이 오른쪽의 그림이다.

자료2) Connectivity Travel Time Indicators: England, 2011 data (experimental), Statistical Release, 11 June 2014, DfT



결론

교통부문의 자료들이 풍부해지고 통합의 움직임이 활발해짐에 따라 국가교통DB센터의 업무도 과거와 차별화되게 진행되고 있다. 2015년에도 단순히 수치적으로 제공하던 교통통계에서 통계항목의 다양화와 더불어 시각적인 내용이 포함된 infographic의 산출물로 국가 교통 DB 뉴스레터가 한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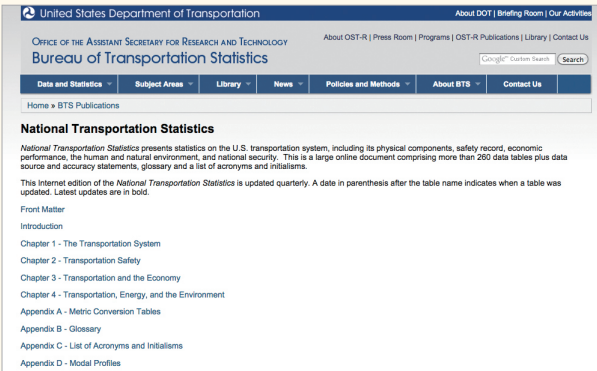

주요 기관별 교통통계 제공 동향 비교

오연선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 황순연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개요

-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다양한 교통관련 통계항목을 각 나라별 실정에 맞게 제공하고 있다. KTDB에서는 지난 2년동안 국가별 교통통계 DB를 소개하고 통계정보에 대한 활용 관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해왔다.
- 주요 선진국의 교통통계 DB를 종합하여 일목요연하게 구분 및 정리함으로써 국가별 통계항목에 대한 비교를 쉽게 하도록 하고자 한다.
- 또한 대상 국가 및 대상 기관에서 조사 및 수집단계를 거쳐 통계적 검증은 하는 일련의 통계자료 산출과정 및 체계를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대상 국가 및 대상 기관은 미국 교통통계국(BTS) / 영국 교통부(DFT) / 유럽연합통계청(EURO-STAT) / OECD 국제교통포럼 (ITF: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이다.

국가 기관별 제공통계 비교

BTS	DF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TS(교통통계국)는 미국 교통부(US DOT)의 하부조직인 RITA의 내부조직 • 교통통계를 수집, 분석, 발간하며 통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FT(영국교통부)에서는 영국의 각종 정책, 발간보고서 및 링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통계수치와 근거자료를 함께 제시하여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도록 정보를 제공
총계:291 (• 대분류:4 • 중분류:25 • 소분류:262)	총계:199 (• 대분류:12 • 소분류:187)
주요 통계 항목 (대분류 기준) The Transportation System / Transportation Safety / Transportation and the Economy / Transportation, Energy, and the Environment /	주요 통계 항목 (대분류 기준) Public transport / Transport accidents and casualties / Roads and traffic / Aviation / Energy and environment / Freight / Maritime / Transport and disability / Walking and cycling / Transport expenditure / Vehicles
www.rita.dot.gov/bts 	www.gov.uk 
기준시점: 2015년 1월 30일 web기준	기준시점: 2015년 1월 30일 web기준

교통통계DB 구축 및 제공 방법



미국

미국 교통통계국(BTS)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는 기관 자체의 통계 기준 뿐만 아니라 미국 교통국의 통계정보 품질 기준 및 지침의 적용을 받고 있다.

통계자료의 수집 및 구축은 각각의 교통시설 및 수단의 운영자로부터 수집된 자료가 모니터링 체계 및 가공체계를 통해 산출되어 통합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미국 교통통계국(BTS) 웹사이트에는 수단별 주행거리, 수단별 인프라 및 운수시장 그리고 수송수단 규모, 수단별 수송실적 등의 교통통계 항목에 대한 자료출처 및 구축방법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상세주소 www.rita.dot.gov/bts/sites/rita.dot.gov/files/publications/national_transportation_statistics/html/appendix_e_chapter_01.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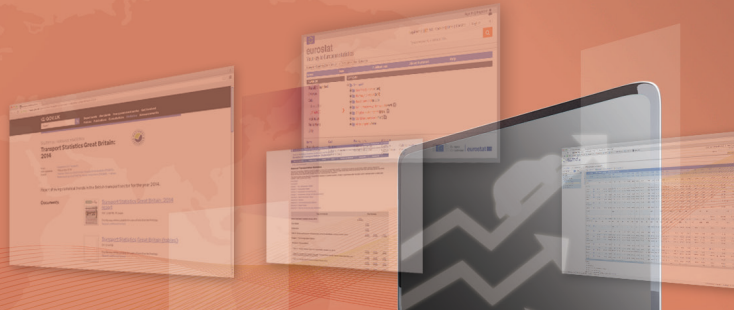


영국

영국 교통부(DFT)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는 항공, 에너지 및 환경, 화물, 해운, 대중교통, 사고, 보행 및 자전거, 교통 약자, 교통 비용 등이며, 제공하고 있는 통계자료 범위에 대한 구축방법 및 자료 사용 시 주안점 등에 대해 주제별로 안내서를 제공하고 있다. 수단별 조사별 통계자료는 조사를 통해 구축되거나 기관 및 운영자에 의해 수집·구축되며 구축 방법 및 수집 자료의 변화에 대한 이력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 교통부(DFT) 웹사이트에는 교통수단 및 교통비용 등 범주별 통계자료에 대한 자료출처,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 등에 파일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상세주소 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ransport-statistics-great-britain-guidance



시사점

통계를 구축하는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수단별, 주제별 범주에 해당되는 주체로부터 조사된 원시데이터가 모니터링 단계를 거쳐 수정·가공된 자료를 수집하여 웹사이트를 통해 집계된 자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비교대상 국가 및 기관들의 자료수집체계에서 국가의 경우 해당 시설 및 수단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자료를 수집하고 자체 또는 상위기관의 기준과 지침에 따라 모니터링 단계를 수행하며, 국가들의 연합으로 이뤄진 기관의 경우 표준 지침과 안내서를 제공하여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또한 통계항목에 대한 자료범위 및 사용시 유의사항을 제공하여 사용자 편의성과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시키고 있으며 국가교통DB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www.ktdb.go.kr)에서도 제공자료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제공하여 자료에 대한 설명 및 갱신주기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URO-STAT

- EU 가입국가에 대한 경제, 교통, 산업, 무역, 에너지 및 환경 등의 분야별 통계를 DB화 하여 정보제공

총계:279 (• 대분류:7 • 중분류:39 • 소분류:233)

주요 통계 항목 (대분류 기준)

Multimodal data / Railway transport / Road transport / Inland waterways transport / Oil pipeline transport / Maritime transport / Air transport

ITF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 OECD에 근간을 두고 있는 국제교통 조직.
- 도로, 철도, 항공, 해운 등 세계 각국의 다양한 통계지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수립을 위한 씽크탱크

총계:66 (• 대분류:4 • 중분류:12 • 소분류:50)

주요 통계 항목 (대분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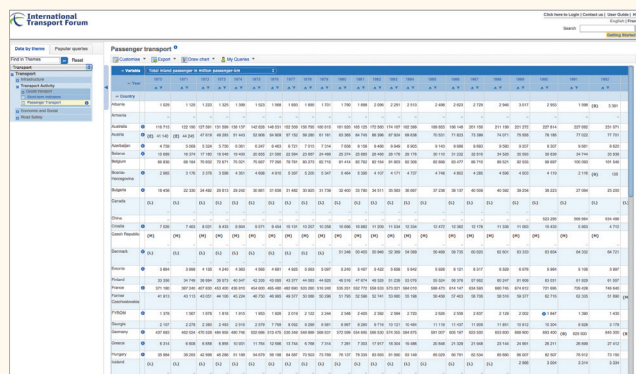
Infrastructure / Transport Activity / Economic and Social / Road Safety

ec.europa.eu/eurostat



기준시점: 2015년 1월 30일 web기준

www.internationaltransportforum.org



기준시점: 2015년 1월 30일 web기준



EURO-STAT

EURO-STAT은 유럽연합 국가들의 경제활동 지원 및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 따라 도로, 철도, 항공, 운하, 해운 등의 분야별 정책변화 및 관련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부터 화물의 운송 및 여객의 통행 규모, 인프라의 규모 뿐만 아니라 교통분야의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구축하고 있다. EURO-STAT 웹사이트에는 교통분야 등 제공 자료와 관련하여 정책적 변화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며 기초 정책의 근거자료를 링크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상세주소 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ransport_statistics_introduced



ITF

ITF는 OECD 회원국가로부터 교통인프라, 여객 및 화물 수송량, 교통부문 관련 세금, 안전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다.

ITF 웹사이트에는 UNECE(유럽경제위원회), EMCT(유럽장관회의)를 통해 회원 국가별 자료 수집시 통계항목 용어에 대한 표준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안내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이용자 사용설명서를 제공하여 자료를 검색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상세주소 www.oecd-ilibrary.org/transport/glossary-for-transport-statistics-3rd-edition_9789282102084-en

센터행사안내

「빅데이터 기반 교통혼잡예측을 위한 핵심 요소기술 개발 연구」 전문가 토론회

일자/장소 12.5(금) 본원 용산 회의실
내용 교통혼잡예측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토론자 중앙대 손기민 교수, 아주대 유정훈 교수, 교통대 이장호 교수,
명지대 김현명 교수, 서울과기대 정성봉 교수

「수도권 활동-통행자료의 공간분석」 전문가 세미나

일자/장소 12.8(월) 본원 5층 회의실
내용 수도권 활동-통행자료의 공간분석 관련 전문가 세미나
발표자 경희대 이원도 교수

「공간단위 설정방법에 따른 활동기반모형 적용결과 비교분석」 전문가 세미나

일자/장소 12.16(화) 본원 5층 회의실
내용 공간단위 설정방법에 따른 활동기반모형 적용결과 비교분석 관련
전문가 세미나
발표자 미국 포틀랜드주립대 김기홍 박사

「첨단자료를 활용한 여객교통수요 신뢰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일자/장소 12.15(월) 본원 5층 회의실
내용 첨단자료를 활용한 여객교통수요 신뢰도 개선방안 연구
(기종점 통행량 검증 및 도로통행비용함수 개선) 최종보고회

「빅데이터 기반 교통혼잡지도 및 교통예보를 위한 핵심 요소기술 개발 연구」 최종보고회

일자/장소 12.17(수) 본원 5층 회의실
내용 빅데이터 기반 교통혼잡지도 및 교통예보 핵심 요소기술 개발 최종보고회

「여객 O/D 현행화 공동사업」 최종보고회

내용 2014 여객 O/D 현행화 결과 지자체 최종보고
광주광역시 12.17(수) 광주광역시청 중회의실
대전광역시 12.18(목) 대전광역시청 중회의실
부산울산권 12.18(목) 부산발전연구원 중회의실
수도권 1.14(수) 경기개발연구원 7층 대회의실

「교통수단이용실태조사」 최종보고회

일자/장소 1.22(목) 본원 1층 중회의실(133호)
내용 2014년도 교통수단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보고회

「교통량기반 차량주행거리 산정시스템 개발을 위한 워크숍」 개최

일자/장소 1.23(금) 본원 회의실(116호)
내용 지역별 도로유형별 차량주행거리 산정 시스템 개발관련 논의
발표자 서울시립대 박동주 교수, 충북대 허태영 교수, 서울대 장현호 박사,
큐빅웨어 정수호 대표, 본원 김찬성 소장, 천승훈·홍다희·장동익·
이석주 부연구위원

「민간 교통정보 협력」 공동 세미나 개최

일자/장소 1.26(월) 현대엠엔소프트 회의실
내용 교통혼잡지도 구축 및 활용방안, 교통혼잡예보제 방법론 세미나 및
향후 협력방안 논의
발표자 본원 천승훈 부연구위원, 서울대학교 장현호 선임연구원,
현대엠엔소프트 이정재 수석연구원, 본원 김동호 연구원

「설 연휴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 실시

일자 2015년 1월 14일~18일
장소 전국 대상 전화설문조사
내용 설 특별교통대책 수립을 위한 통행실태조사

「2015년 설 특별교통대책」 언론브리핑 참석

일자/장소 2015년 2월 10일(화)(예정), 국토교통부 기자실
내용 설 특별교통대책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 브리핑 참석

자료안내

주최: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 홈페이지: <http://www.ktdb.go.kr>

■ 「2014년도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 KTDB뉴스레터 통합본

내용: 2014년 KTDB 뉴스레터 통합본

일자: 2015년 3월(예정)

■ 「2014년도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 최종보고서

내용: 2014년 KTDB 사업 결과보고서

일자: 2015년 2월(예정)

■ 「국가교통DB 맵북」 영문판 자료배포

내용: 국가교통DB맵북 영문판

일자: 2014년 9월

■ 「2013년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 구축자료 배포

내용: 2012년 기준 및 장래목표 년도 지역간 여객/화물 기종점통행량
(O/D), 교통분석용 네트워크

일자: 2014년 4월

■ 「2013년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 성과발표회 자료배포

1차 자료배포: 성과발표회 자료(Ⅰ), KTDB뉴스레터 통합본,
국가교통DB맵북(2014년 2월)

2차 자료배포: 「국가교통통계 개선연구」 정책토론회 자료(Ⅱ),
2013년 국가교통통계 국내편, 국제편, 해설편(2014년 5월)

3차 자료배포: 「교통SOC 투자정책과 국가교통DB」 정책토론회 자료(Ⅲ)
(2014년 6월)

4차 자료배포: 「KTDB 교통수요분석 개선방안」 성과발표회 자료(Ⅳ)
(2014년 12월)